韓國營食誌 5(1) 53~59 1976 J. Korean Soc. Food Nutr. 5(1) 63~59 1976

능금무리(Apples)의 中國渡來에 關한 考察

李盛雨·金光秀·李江子

嶺南大學校 食品營養學科

Investigation to Introduction of Apples on Chinese

Sung-Woo Lee · Kwang-Soo Kim · Kang-Ja Lee

Dept. of Food & Nutrition,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Around 2nd century B.C. two varieties of apple, *i.e.* 'Nay' and 'Imgum' were already grown in China. It can be suspected that 'Nay' came from the West because of its popular word 'Pyn Por' and 'Imgum' was originated from North East Asia because of its word 'Lii Kiem'. After this time 'Imgum' was called as its popular name 'Sha Guoo' in about 15th century.

In 17th century a new variety of 'Nay' was named as 'Pyng Guoo' and this name was replaced with 'Nay' when the variety was widely supplied. In 19th century a better variety of 'Nay' was developed in the West and it was introduced into China in 20th century which was called 'Western Pyng Guoo'. As a result there were two kinds of 'Pyng Guoo', *i.e.* 'Chinese Pyng Guoo' and 'Western Pyng Guoo'. However, the 'Western Pyng Guoo' was more supplied and it was said 'Pyng Guoo' which was written as 'Pyng Guoo(苹果)' or 'Pyng Guoo (平果)'. At present time apples were classified into 'Sha Guoo' and 'Pyng Guoo'. The old 'Nay' is now called 'Bin Tzyy' which is hardly found.

From this study it is suspected that the history of Chinese apples were affected much on our introduction history and its naming.

序 論

Apples는 植物分類學上으로 능금屬(*Malus*屬)에 속하는 것으로, 오늘날 世界的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果實의 하나로서, Swiss湖棲民族의 遺物에서도 發見되어 있을이만큼 그 栽培歷史가 오래 되었고 地域的으로는 그 原生的 分布가 Europe·Asia·北美의 三大陸에 걸치고 있다.

그런데 이 apples는 渡來의 年代·系路에 관하여 여러 說이 있었고, 또 이것의 名稱이 林檎·柰·沙果·花紅·檳子·頻婆·蘋果·苹果 등으로 불리면서 각각의 名稱과 形狀 相互間의 連關이 잘 지어지지 않으니 史的인 縱橫關係가 매우 애매한 바 있다.

이에 筆者는 우리 나라 apples의 歷史를 考察하기 위한 前提作業으로서 中國에 있어서의 apples의 渡來史와 物名에 관하여 整理·檢討하였기에 그 結果를 報告코자 한다.

本　　論

1. 栽培起源의 年代

中國 apples의 栽培起源에 관하여 처음으로 硏究한 사람은 日本의 菊池[1),2)]이다. 菊池는 주로 本草書에 依據하여, apples는 陶弘景의 神農本草經集註(502~536)에서 柰와 林檎이란 이름으로 비로소 登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神農本草經集註는 從前부터 있었던 本草經을 기초로 하여 整理한 神農本草經과 陶弘景 자신이 지은 名醫別錄을 합하고, 다시 註釋을 붙인 것이다. 이 册의 神農本草經 부분에는 apples에 관한 記文이 없고, 名醫別錄 부분에 다음과 같은 記文이 보인다.

柰　江南雖有　而　北國最豊　作脯食之
不宜人　林檎相似而小　俱不益人

柰는 江南에도 있기는 하나 北國에 가장 많고, 脯를 만들어 먹으며, 林檎은 柰와 비슷하면서 보다 작다는 것이다. 菊池가 이것을 最初의 apples栽培記錄이라고 보았기에 흔히들 東洋에서는 6世紀경에 비로소 apples가 栽培되기 시작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3)].

그러나 中國의 辛[4)]은 本草書를 비롯한 보다 많은 각종 古文獻에서 apples에 관한 記文을 뽑아 中國에 있어서의 apples 栽培起源의 年代를 再檢討하였다. 그는 司馬相如(　　~BC 118)가 天子의 上林苑에서 즐기는 狩獵을 노래한 上林賦를 들고 있다. 여기에

梬　柰　厚樸

이라는 말이 있으니 中國에서의 柰의 栽培起源年代는 늦어도 BC 2世紀라 보고, 菊池보다 8世紀나 앞당겨 놓았다.

林檎에 대해서는 辛[4)]이 晋代(265~420)의 廣志[註1]·王羲之帖, 後漢(23~220)의 釋名 등에 林檎의 初期名稱인 里琴이나 來禽의 記文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林檎의 栽培는 적어도 3世紀 경에 비롯되었다고 보아서 菊池보다 3世紀 앞당겼다.

한편 筆者로서는 林檎의 栽培起源年代에 대하여 西京雜記의 記文에 注目코자 한다. 西京雜記는 著者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魏·晋代의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 西京雜記에 上林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記文이 보인다.

初修上林苑　羣臣遠方　各獻名果異樹
亦有製爲美名　以標奇麗
柰三　白柰　紫柰　綠柰　林檎十株

上林苑은 秦의 舊苑으로서, 漢武帝 建元 3年(BC 138)에 3,000餘種의 名果異株를 멀리 여러 곳에서 獻納받아 심었는바 이 가운데 柰와 더불어 林檎이 登場하고 있다.

西京雜記의 著作年代는 비록 내려오지만 辛[4)]이 柰가 上林苑에 있었다는 上林賦에 根據를 두고 年代를 BC 2世紀라 하였다면, 林檎 역시 3世紀 경까지 내려올 것이 아니라 적어도 漢武帝時에 栽培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晋宮 華林園의 다음 記文(太平御覽 引用)은 당시 柰가 林檎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柰 : 晋宮閣名　華林園 有白棟 四百株
林檎 : 晋宮闕記　華林園 有林檎 十株

또 廣志에 「林檎似赤棟」라 하였으니 當時의 華北地方으로서는 林檎이 副이고, 柰가 主로서, 보다 普遍的이며 歷史的으로 빠르다는 뜻도 內包될지 모르겠다.

2. Apples의 原生地

(1) 柰

柰가 구체적으로 어떤 果實인지는 고사하고, 이 柰에 대하여 廣志에서는 이것으로 脯를 만들어 頻婆粮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本草綱目(1590~1596)에서도 柰를 梵音인 頻婆(Pyn Por)라 부른다고 하였다. 또 石[5)]은 孔子家語에 나오는 萍實(Pyng Shyr)이 柰의 音譯어라 이것 역시 頻婆에서 온 것 같다고 하였다. 이렇듯 柰를 外來梵音인 頻婆로 부르는 것은 바로 柰

註 1. 廣志의 著作年代를 菊池는 6世紀라 하고 있으나, 石聲漢의 齊民要術今釋과 毛章孫의 中國農書目錄彙編에서는 3世紀라 보고 있다.

가 渡來品이란 것을 쉽게 짐작케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渡來한 것일까? 北村[6]는 Afghanistan에서 直徑 4~5 cm의 조그마한 apple이 市販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當地에서 「sêb」라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다. 中國의 頻婆는 Hindustani의 「seba」에서 온 것이고, 「seba」는 Iran語의 「sêb, sêf」에서 온 것이며, 西洋 apples는 野生種과 野生化種의 區別이 명백하지 않으나 어쨌든 中央 아시아 高原地方에 野生하고 있으며, 北村 자신도 Afghanistan에서 果實 直徑 2~2.2 cm의 野生狀의 것을 採集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地域을 西洋 apples의 原生地로 볼 때 一部는 Europe 方面으로, 또 一部는 漢武帝 때 이미 西域과의 交通이 있었으니, 柰, 곧 頻婆로서 華北地方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柰의 產地로서 廣志·齊民要術·本草綱目 등에 張掖·酒泉·涼州 등 주로 西部地方의 地名이 보인다. 결국 西洋 apples와 柰(頻婆)는 原生地가 같다고 하겠다. 따라서 國譯本草綱目[7]에서 柰의 學名을 현대 西洋 apples와 마찬가지인 *Malus pumilla Miller*로 表示하고 있음은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2) 林 檎

林檎의 原生地는 中國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8),9)] 그러나 石[10]은 다음과 같은 廣志의 林檎에 관한 記文에 대하여 재미있는 考證을 하고 있다.

廣志(齊民要術 引用)　理琴以赤柰(以→似)

廣志(太平御覽 引用)　黑琴似赤榛(黑→里)

廣志(藝文類聚 卷 87 引用)

林檎似赤柰子 亦名黑檎 又曰一名來禽 (黑→里)

石은 畢書校補에 依據하여 廣志의 「黑」字는 「里」字의 錯寫이고, 「以」字 역시 「似」字에 錯寫라 하였다[註2]. 이로써 晋代에는 林檎이 里琴 또는 來禽으로 通用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理琴이나 里琴이란 말은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文法에도 맞지 않으니 理琴이나 里琴은 林檎의 音譯의 最初 형식이고, 唐初까지는 里와 來의 音이 같고, 琴과 禽은 音이 모두 Kiem이라고 說明하였다. 그리하여 石은 林檎이 外來果로서 中國原生은 아니란 結論을 내리고 있다.

한편 尙書故實에는 來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來禽言味甘來衆禽也　俗作林檎

來禽은 맛이 좋기에 이것을 먹기 위하여 새들이 모여든다는 뜻으로 그렇게 表記하였다는 것이다. 來禽과 里琴의 音이 같았다는 石의 說明과 아울러 생각할 때 合理的인 說이라 보겠다. 또 수풀 속의 새들이란 뜻으로 林檎이라고도 적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林檎이 外來果라면 이것은 어디에서 渡來한 것일까? 陳藏器의 本草拾遺(739)에 林檎의 一變種이라 보는 文林郎果에 대하여 「生渤海」라 하였고, 淸代의 授時通考(1737)에 柰는 「西土最豊」이라 하는데 비하여 林檎은 「生渤海」라 하고 있다. 또 唐代의 洽聞記에 林檎의 產地로서 渤海에 보다 가까운 山東半島인 魏郡, 曹州 등의 地名을 들고 있다. 그리고 林檎은 滿州와 韓國에 널리 野生하고 있으며, 生育環境도 이들 地域에 알맞다. 當時의 中國으로 봐서는 渤海와 같은 東北 Asia는 異域이고 言語도 달랐다. 이들로 미루어 石이 林檎을 外來果라고 보는 說에 따른다면 林檎의 原生地는 오히려 東北 Asia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Malus asiatica Nakai*인 것이다.

3. 一次的인 物名의 混亂

4世紀 경까지 林檎은 里琴·來禽·日給 등의 異名을 갖고 있었으며, 柰는 頻婆라고 불리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唐代의 洽聞記에 다음과 같은 記文이 보인다.

唐永徽中 魏郡 臨黃王國 村人王方言 嘗於河中灘上 拾得一小樹 栽理之. 及長 乃林檎也. 實大如小黃瓠……又非常美. 紀王愼爲曹州刺史有得之獻王. 王貢於高宗 以爲朱柰 又名 五色林檎或謂之聯珠果. 種於苑中 西域老僧見之云是奇果 亦名林檎. 上大重之 賜王方言 文林郎亦號此果爲 文林郎果 俗云頻婆果.

唐 永徽時代(650~655) 王方言이 江에 떠내려오는 한 나무를 주워서 가꾸어보니, 열매가 매우 큰 새로운 變種의 林檎이었다. 이것을 唐 高宗에 獻納하니 그는 文林郎이란 벼슬을 얻고, 이 나무를 文林郎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當時 林檎과 柰는 一類

註 2. 西山·熊代의 齊民要術 日本語版(1957, 東京大學 出版會)에는 廣志의 記文을 校補하지 않은 채 번역하였기에 「琴을 理하자면 赤柰를 利用한다」는 애매한 말을 하고 있다.

二種으로서 柰의 열매가 林檎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林檎의 新變種으로서 열매가 큰 것이 나타나니 그만 이것을 俗云 頻婆果(=柰)라 해버려서 여기에 名稱上의 混亂이 一次的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겠다.

4. 蘋果의 登場

羣芳譜(1630)에는 apples로서 從來의 林檎·柰 이외에 蘋果를 새로이 등장시키고 있다.

蘋果(按本草不載蘋果 而釋柰云 一名頻婆 據採蘭雜志 學圃餘疏 頻婆 又 當爲此名 蓋與柰一類二種也) 出北地 燕趙者尤佳 接用林檎體 樹身聳直 葉青似林檎而大 果如梨而圓滑 生青熟則半紅半白或全紅 光潔可愛玩 香聞數步 味甘鬆…….

羣芳譜가 씌어질 무렵에 中國에서는 渡來品인지 育成品인지는 몰라도 보다 크고 香氣로우며 맛이 좋은 apples의 新變種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柰(頻婆)와 一類二種이라 하였으니 頻婆의 改良種임을 알겠고 그 名稱마저 頻婆의 頻을 따서 蘋果라 한 것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이것의 學名은 頻婆와 마찬가지로 *Malus pumilla Miller*인 것이다.

採時通考(1737)에도 羣芳譜의 記文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植物名實圖考(1848)에는 「柰, 即 蘋果」라 하고 있으니 19世紀 中葉에는 벌써 柰는 재 變種인 蘋果에 거의 吸收되어 버린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柰는 그 以後 아주 없어졌을까? 菊池[1] 가 1930年代 現地調査를 하여 본 바에 의하면, 柰는 俗間에서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다만 檎子라는 *Malus*屬의 果實이 本草學에서 말하는 옛 柰가 아닌가 推定하였고, 孫[11]은 「西北的 果樹」에서 中國에 본래부터 있었던 apples는 蘋果·沙果(花紅)·檎子(紅果·紅檎·紫檎) 등이라 하고 있다. 실제로 淸代에 만든 滿洲語 辭典인 漢淸文鑑(1708)에서는 apples를 沙果·檎子·蘋果로 나누고, 檎子를 Merseri라 하니 우리 나라의 柰의 옛名 「멋」과도 통한다. 이들로 미루어 檎子는 겨우 命脈을 지니고 있는 柰의 遺種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한편 劉[12]는 漢淸文鑑 語彙考에서, 「핑구리」는 蘋果인바, 「핑구리」란 말은 頻婆果에서 轉成된 것이라 하였으나, 頻婆果는 柰로서 Merseri라 하니 이것이 「핑구리」로 바뀔 리는 없고, 당시 滿州에도 蘋果가 있었으므로 「핑구리」란 蘋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5. 名稱과 果形의 關係

中國의 本草書에서는 apples를 林檎과 柰로 나누어 놓고 그 果形을 食性本草[註3](936~975)에서

大長者爲柰　圓者爲林檎

이라 했고, 開寶本草(974), 本草圖經(1062), 本草綱目(1578)을 거쳐 現在의 東洋醫學大辭典(1926)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林檎은 작고 둥근 것이며 柰는 크고 길다란 것이라고 하여 傳統을 固守하고 있다(Fig.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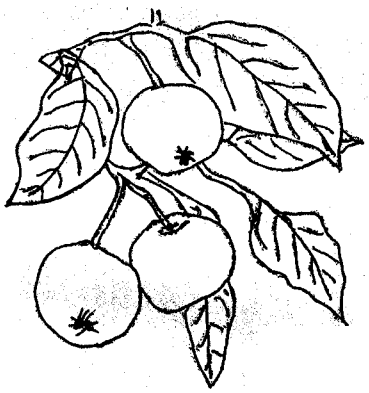

Fig. 1. 林檎 (證類本草)

Fig. 2. 柰 (本草綱目)

註 3. 食性本草·開寶本草·圖經本草 등은 亡失되어 現在 볼 수 없으나, 證類本草(1082~1090)에 이들이 轉載되어 있다.

그러나 18世紀의 授時通考나 19世紀의 植物名實圖考에서는 벌써 本草書와는 달리 果形에 구애받지 않고 柰나 蘋果는 林檎보다 크게 扁圓形으로만 그려놓고 있다(Fig. 3~7).

Fig. 3. 林檎(授時通考)(子如柰)

Fig. 4. 柰(授時通考)(似林檎而實稍大)

Fig. 5. 蘋果(授時通考)(似林檎而大)

Fig. 6. 林檎(植物名實圖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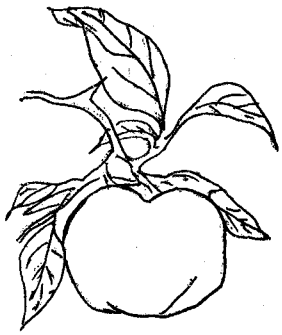

Fig. 7. 柰(植物名實圖考)(柰=蘋果)

6. 現代의 苹果

17世紀 以來 中國에서 蘋果가 普及되고 있는 가운데, Europe이나 美國에서는 19世紀初葉부터 apples의 品種改良과 栽培技術이 크게 開發되었다. 이 apples는 20世紀初葉 越南을 거쳐 中國의 雲南省에 들어왔다. 이에 대하여 劉[13]는 본디 中國에는 蘋果의 野生種은 존재하지 않고, 西洋의 蘋果가 中國에 들어와서 普及되니 이것을 西洋蘋果라 하고 從前부터 있었던 蘋果는 中國蘋果라 하여 서로 구별하였는바, 西洋蘋果는 從來의 蘋果의 一變種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西洋蘋果의 栽培가 壓倒的으로 많아졌으니 이제 蘋果하면 西洋蘋果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본디 中國에서는 字가 복잡한 것은 同音少畫의 字로 簡略化한다. 따라서 蘋果는 苹果 나아가서는 平果로 表記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7. 沙果란 中國에서는 林檎의 俗名

本草品彙精要(1505)에 林檎의 異名은 沙果(Sha Guoo) 및 花紅이라 하였고, 學圃餘疏(1587)에도「花紅即古林檎」이라 하였다. 이로써 당시 林檎은 本草學上의 學術名이고, 일반적으로는 沙果 또는 花紅이란 이름으로 通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한편 汝南圃史(1620)에는 林檎을 宋代(960~1128)以來 花紅이라고도 하였다고 記錄되어 있고, 植物名實圖考(1848)에는 林檎이란 바로 沙果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菊池[1]가 1930年代 現地調査를 한 바에 의하면, 林檎이란 俗間에서는 通用되지 않고 蒙疆·華北地方에서는 沙果(異名으로서 花紅)라 하고 있으며, 山東一部와 華中地方에서는 花紅(異名으로 沙果)

이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實際로 오늘날 臺灣에서 사용하고 있는 食品成分表[14]를 보니 apples로서 蘋果 한 項目만 나와 있고, 大陸에서 쓰고 있는 食品成分表[15]에는 沙果(異名으로서 花紅·林檎), 苹果의 2項目이 나와 있다.

이들로 미루어 中國에서의 沙果는 정녕 林檎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Table 1. apples의 中國 物名 變遷

		林檎	柰	蘋果
上林賦 (BC 2世紀)			柰	
西京雜記의 上林苑		林檎	柰	
孔子家語			萍實 (頻婆)	
廣志 (晋代)		里琴·理琴	柰 (頻婆)	
王羲之帖 (晋代)		來禽		
洽聞記 (唐代)		文林郎果 (林檎·頻婆果)		
名醫別錄 이래 現在까지의 本草書		林檎 (小·圓)	柰 (大·長)	
本草品彙精要 (1505)		林檎=沙果 또는 花紅		
學圃餘疏 (1587)		花紅古林檎		
羣芳譜 (1630)		林檎	柰	蘋果
漢清文鑑 (1708)		沙果	槓子 (Merseri)	蘋果
授時通考 (1737)		林檎(來禽·文林郎果)	柰 (頻婆)	蘋果 (頻婆)
植物名實圖考 (1848)		沙果=林檎 (小)		蘋果=柰 (大)
20世紀 初葉				中國蘋果 西洋蘋果
菊池의 調査 (1930경)		沙果=林檎	柰=槓子	蘋果
現在	臺灣			蘋果
	大陸	沙果		蘋果
	西北的 果樹	沙果 (花紅)	槓子	蘋果
學名		*Malus asiatica Nakai*	*Malus pumilla Miller*	

結論

中國에서 BC 2世紀 경에 이미 apples로서 柰와 林檎의 2種이 栽培되고 있었다. 柰는 俗名이 梵音인 頻婆인 것으로 미루어 西方에서 온 것이고, 林檎은 옛名 里琴으로 미루어 外來果로서 東北 Asia 原生임이 推測된다. 그러다가 林檎은 15世紀 경 沙果란 俗名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17世紀에는 柰의 新品種이 나타나서 이것을 蘋果라 하였고, 크게 普及됨에 따라서 從來의 柰는 蘋果란 이름 속에 거의 吸收되어 버렸다. 한편 西洋에서는 19世紀에 柰의 보다 優秀한 品種이 開發되어 20世紀初에는 中國에 들어오니 蘋果는 中國蘋果와 西洋蘋果로 나누어지고, 西洋蘋果가 더욱 普及되어 大部分을 차지하니, 西洋蘋果를 그냥 蘋果라 하고, 다시 同音少畫의 苹果·平果로 表記됨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은 apples를 沙果(林檎)와 苹果의 둘로 나누어 다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옛 柰는 槓子라 하여 겨

우 命脈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中國 apples의 歷史는 우리 나라 apples의 渡來史와 物名에 많은 影響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1) 菊池秋雄 (1944), 北支果樹園藝, 養賢堂, 日本.

2) 菊池秋雄 (1951), 果樹園藝學(上卷), 養賢堂, 日本.

3) 高嶋四郎·傍島善次·村上道夫 (1971), 有用植物, 保育社, 日本

4) 辛樹織(1962), 我國果樹歷史的研究, 農業出版社, 中國.

5) 石聲漢 : 辛의 我國果樹歷史的研究에서 引用

6) 北村四郎(1959), 歐亞大陸の東西栽培植物の交流, 東方學報 第29册, 京都, 日本.

7) 鈴木眞海(1929), 國譯本草綱目, 春陽堂, 日本.

8) 鄭台鉉 (1957), 韓國植物圖鑑(木本部), 教育社, 韓國.

9) 白井光太郎 (1929), 植物渡來考, 日本.

10) 石聲漢 (1957), 齊民要術今釋, 科學出版社, 中國.

11) 孫雲蔚 (1956), 西北的果樹, 科學出版社, 中國.

12) 劉昌惇 (1957), 漢淸文鑑語彙考, 국어국문학 卷 17, 한국.

13) 劉士林 : 東北木本植物圖誌之說(p. 301~302) [我國果樹栽培的歷史에서 引用]

14) 王德瓊 (1970), 食物營養學, 復興書局, 中國.

15) 書籍文物交流會 (1970), 中國食品辭典에서 引用.